

# 용담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군민 면역력 증진 적극 지원

### 진안군, 용담호 주변 자원 연계 체류형 생태문화체험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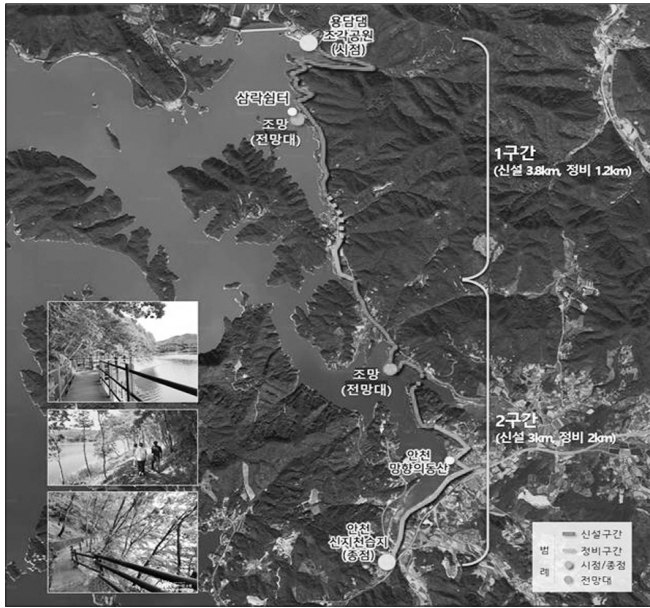
진안군이 생태문화관광 방향 제시 및 실현을 위한 용담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된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용담호 주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이용한 탐방길 조성에 나선다.

사업은 국내 다섯 번째 규모의 인공댐인 용담댐 물문화관을 시작으로 안천면 신지천 인공습지까지를 데크탐방로, 숲길, 휠터 등으로 있는 총 10km의 탐방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 추진이 잘 보존해 온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한 용담호의 가치를 활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2024년) 용담댐 조각공원-구실재 방항 안내시설 및 전망대, 휠터 조성과 △2단계(2025년) 구실재~안천면 신지천 습지까지 이르는 곳의 탐방로 신설 및 정비 및 안내 시설 및 전망대 휠터 등을 조성한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진안고원길에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생태탐방로 구간을 추가 운영하며 진안고원길과 프



진안군 용담호 일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계획 구간)

로그랩 연계를 통한 탐방객 유치에 힘쓰는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호 주변의 생태 문화적 가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진안군민의 생태문화관광의 방향 제시 및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군민 대상 면역력 무료 검사서비스 착수

무주군은 지난 1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면역력(NK세포 활성화) 무료 검사서비스'를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면역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의 개념을 건강까지 확장하는 군민 면역력 증진 프로젝트 추진 차원에서다.

군민 면역력 검사 서비스는 체내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NK세포(Natural Killer Cell)란 백혈구의 일종으로 '자연살해세포'라고도 불리며, 체내 암세포 등 유해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다.

이 서비스는 1ml 소량의 혈액만으로 정확한 면역력 측정이 가능한 최첨단 검사기법을 활용한 검사로, 숫자로 간단, 명확하게 본인의 면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일반의료기관에서 8~15만원 상당(병원마다 상이) 유료검사를 금연, 등축자, 모바일헬스케어 등 보건사업 참여자와 2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면역력 증진을 위해 무료 검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도에 따라 사업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만20세 미만, 임신 4개월 이하 임신부,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항암제를 복용 중인 경우는 검사 방해요인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 사전 예약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원 2층 건강검진실 접수 후에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진행하며, 검사결과는 2주내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된다.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군민들이 스스로 정확한 면역력 상태를 확인하도록 돕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면역력 증진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면역력 무료 검사를 통한 잠재적 면역력 확인이 급속 금연 유도 및 식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이어져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홍찬표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군민 면역력 증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군민 면역력 검사서비스를 계기로 군민들의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이상기상 대응 과수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은 올해 '과수 주산지 이상기상 농작업 정보제공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생육시기별 냉해, 고온 등 이상기상 대응 및 병해충 발생 사전 예방으로 복숭아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원의 온도, 생육상태 등 시기별 실시간 정보 및 ICT기술을 활용한 과원 농작업 정보제공 시스템을 지원한다.

군은 예산 6천만 원(국비 3천만 원 포함)을 투입해 불철서리피해 다발생지역 5개소를 선정해 이상기상 대응 농작업정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 복숭아 생산자 단체가 신청대상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영상장비와 기상측정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에 전송돼다시 표준화된 데이터로 농업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농업인은 이상기상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기상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내일창업 아카데미 운영

진안군은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3년 진안 내일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의 기초부터 창업 트렌드를 쉽게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교육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10명의(예비) 창업자들과 함께 2월 6일부터 5주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13시~16시)에 총 6회에 걸쳐 청년공간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창업마인드 및 창업전략수립 과정이 포함된 기초 실무교육(12시간), 찾아가는 개인 컨설팅(4시간), 모의창업(3시간)으로 구성돼 실제 창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총 19시간 중 80% 이상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소정의 혜택인 아카데미 수료증과 함께 2023년에 추진될 진안군 청년창업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이 주어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 금산군 만인산 농협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8일 최적화된 농산물 유통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변성섭 농협진안군지부장, 농협조합장, 조공법인 대표 등과 함께 금산군 만인산 농협 거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이하 스마트 APC)를 방문해 통합 마케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스마트 APC는 로봇, 센서, 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의 저장부터 선별, 포장 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자가 지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 산지유통시설로 금산군 만인산농협이 최초의 거점 스마트 APC다.

또한, 물류산업의 자동화,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성장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기존 APC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기도 하다.

군은 스마트 APC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고품질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농산물 신선도 향상을 비롯해 새벽배송 등 신개념 물류 시스템에 적합한 유통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시설을 둘러본 전 군수는 "디지털 유통에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인산 농협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산지와 농가가 중심이 되는 농산물 유통의 성공적인 사례를 접하게 됐다"며 "우리군도 실정에 맞는 APC의 스마트화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생산과 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산지유통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형 사회복지수당 지원

장수군은 올해 2억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41개소 235명 종사자들에게 장수형 사회복지수당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장수형 사회복지수당은 민선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종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및 직급 무관하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상근직원이면 월 5만 원 씩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형 사회복지수당은 1년에 1~2번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시군과 차별성을 보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족발야시장, 장수 농산물 활용 특제 소스 개발

장수군과 상생 협약을 맺은 족발야시장(대표이사 방경석)이 장수 농산물을 활용한 특제 소스 개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최훈식 군수는 8일 족발야시장 본사에서 진행되는 제품 출시 기념식과 특제 소스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참석했다.

이번 소스 개발은 지난해 장수군 농특산물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군과 족발야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 협약에서 군과 족발야시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유통판매 활성화에 합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과 상생을 약속한 바 있다.

소스는 장수사과가 함유된 것이 특징으로 족발야시장의 밑키트 종류 중 하나인 떡볶이 스테이크를 비롯해 막국수와 쌀튀김 등 족발야시장 대표 메뉴의 소스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장수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족발야시장 관계자는 "장수군과 힘을 모아서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이용한 소스를 출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소스 출시를 시작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발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기업과 함께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장수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브랜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며 "장수의 농특산물을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